

1965

성도의 벗



3

이브, 어서 오오. 불만한 것이 있소.

저 나무 사이 동편으로 참 영광스런 모양이
이편을 향하여 움직여 오오. 한 낮에 또다시

아침이 밝아 오는듯 하오. 어떤 큼직한 분부를
아마도 하늘에서 우리에게 전하러 오는 듯,

우리의 손님이 되고자 이 날을 내려주신 모양.

그러니 빨리가오, 그대 저장해 놓은 것

가져다가 넉넉히 대접하여 하늘손님
대하고 존경함에 부족없이 하오. 주는 이계계는

그들의 선물을 충분히 이바지하시라. 아낌없이
받는것에서 아낌없이 주게 되는 것이리라.

실락원에서

목 차

| | |
|----------------------------|----|
| 예언자의 말씀 | |
| "두 가지 같이 있다" | 1 |
| 선교부장 멧세이지 | |
| "성 찬" | 5 |
| 당신의 질문 | 10 |
| 대회를 마치고 | 13 |
| (상호부조회 공과) | |
| 신 학 (교리와 성약) | 16 |
| 방문교사 멧세이지 | 26 |
| 봉사의 모임 — 행복한 생활 | 28 |
| 문 학: 문학으로서의 성서 | 32 |
| 사회과학: 하나님의 율법과 교회 행정 | 38 |
| 65년 2월 침례자 명단 | 46 |
| 편집 후기 | 47 |

여언자의 말씀

“두가지 길이 있다.”

대관장 데비드 오. 맥케이



사람들은 선과 악 가운데 어느 것이나 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암흑 가운데를 걸어갈 수도 있고 밝은 광명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주 하나님은 이 지상의 여러 신권시대에 인간들이 이 가운데서 방황하지않고 걸어가도록 하셨으며 사랑이 충만한 아버지로서 그의 자녀들이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의 빛을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로 부터 그들의 자유의지를 빼앗지는 않습니다.

예언자 리하이는 그의 아들 야곱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행동하도록 하셨나니 인간이 이것이나 저것으로 유인되지 아니하고서는 스스로 행동할 수 없느니라" (니파이 2서 2 : 16)

그리고 또 27절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육체로 말미암아 자유로우니 만물은 인간에게 유익하도록 주어졌느니라. 그리고 인간은 만민을 위한 크신 중보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자유롭게 택할 수도 있고 악마에게 속박되어 그 힘으로 말미암아 속박과 죽음을 자유롭게 택할 수도 있나니 이는 악마는 모든 인간이 자기와 같이 비참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만백성들이 행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섹스피어는 그의 희곡가운데서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최후를 결정하는 하나님이 계셔서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를 잘 모르게 한다. (하무렐 제 5 막)

우리들은 자기들의 가는 길을 지워버릴 수도 있을려는지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동이나 만백성들의 행동을 지배하여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을 완성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생각컨대 하나님은 지금 분별없는 자녀들의 우매한 행위와 죄로 말미암아 피하지 못할 결과를 탄식하시면서 "영원"의 그림자 가운데서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그의 아들에게 하신 아버지를 비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로해서 하나님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자식에게 향해서 말하기를 "아들아 여기에 두길이 있다 하나는 바른편으로 통하며 하나는 왼편에 통한다. 만일 네가 바른편으로 통하는 길로가면 너는 성공과 행복에 이를 것이며 네가 왼편길을 택하면 너는 불행과 비참과 죽음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너는 자기의 마음에 드는 길을 택하라. 너는 자신이 택하지 않으면 얹혀쓰니라 나는 어느편도 너에게 강제하지 않겠다"고

그 젊은이는 출발해서 왼편 길의 유혹이나 매력에 이끌려 이것이 자기의 행복을 얻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왼쪽길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화려한 길로 가면 그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화려한 길로 가면 얼마되지 않아 시궁창이 있어 그의 아들이 그곳에 반드시 빠지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또한 그 아버지는 그의 아들이 겨우 이 시궁창에서 빠져나오면 또다시 다른 빠질 수 없는 함정에 반드시 빠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는 그 길을 택하였던 다른 사람들이 그 함정 속에 빠져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며 그 시궁창에서 마른 땅으로 올라올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피나는 투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자식이 그와같은 상태에 빠지기 훨씬 전부터 그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미리 알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지금도 처음과 마찬가지로 그의 아들을 사랑하고 있으며 옳은 길(바른쪽길)로 되돌아 오도록 계속 그의 아들에게 경고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도 또한 옛날의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불행과 죽음에 이르는 길을 택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그것을 예언하였으나 불행이나 죽음을 겪게하는 책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고 하나님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이들 죄인의 행동을 지배하고(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셨음이 틀림없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은 항상 나타나 있습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같이 인간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즉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의 자격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간증"을 선교사로서 전도하는 특권을 갖는 사람은 몇천명에 불과합니다만 우리 교회의 회원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서 생활하는 기회를 가지고 각자가 영원의 생명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각자의 자유의지를 행사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책임과 기회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모범이 되도록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와 같이 행동함으로써 교회원이 만국 백성들이 앙모하는 기수가 되도록 도와 주옵실 것입니다. 진실로 이러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곁에 돌아가도록 하는 길잡이가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25페이지의 계속 신학)

지고 여생을 잃는다는 것은 몇몇 교회 회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토의에서 조셉 에프스미스 대관장은 강조했다. 즉 85장은 헌법의 율법에 관련이 있을뿐 아니라 십일조의 율법 - 그것이 보다 먼저 내려졌기 때문에 - 에도 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회보고 1899년 10월 42페이지)

토론을 위한 질문

1. 어떤 환경이 85장을 가져오게 했나 말하라
2. 왜 서한이 경전이 될 수 있다고 믿는가?
3. 생명책과 율법책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
4. 토론: 85장은 십일조의 율법을 지키기 위한 계명이다.
5.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란 무엇이며 누가 그 작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나?
6. 주님은 85장에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벌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

선교부장 메시지

"성찬"

선교부장 게일 이. 카



최근 한국 선교부내에는 일반적으로 비대하여져 가고 있는 하나의 그릇된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찬을 들지 않는 버릇입니다. 성찬을 축복하고 전달하는 사람도 역시 성찬을 들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경향을 목격하고 심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느꼈던 바 여기에는 두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것 같습니다.

1. 교회 회원들은 성찬의 중요성과 그 의의를 올바르게 이

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2. 성찬을 들지않는 사람은 진실로 합당치 않은 사람들이라는 점이며, 만약 그렇다면 그들이 성찬을 축복하거나 전달하기에도 합당할 것인지 의심스러운 문제가 대두됩니다.

성찬은 초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에 따라 실시되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성찬의 상징에 관하여 주께서 주신 기도의 기록을 갖고 있지 않으나 주님은 분명히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이와 똑같이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계명으로 성찬을 다시 취하도록 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기념하는 빵과 물을 들기 위해 자주 교회에서 함께 모인다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교리와 성약 20 : 75) 또한 교리와 성약 59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서 더욱 흠없이 되려면 너희는 기도의 집에 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너희 성찬을 드려야 하나니: 이 날은 진실로 너희 일을 쉬고 가장 높이 계시는 분에게 헌신하는 날로 정해진 날이기 때문이니라. 뿐만 아니라 이날은 너희가 항상 모든 날들을 의로움으로 바칠것을 맹서해야 하는 날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이 주님의 날에 너희는 너희 형제와 주님에게 너희 죄를 고백하며 가장 높이 계시는 분에게 너희 헌납물과 성찬을 드려야 함을 기억하라" (교리와 성약 59 : 9-12)

여러분들은 "너희는 해야한다"는 구절을 주목할 것입니다.

이와같은 말씀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시내산에서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를 통하여 성찬을 축복할 때에 드리는 기도문을 주셨습니다. 나는 이 기도문에 내포된 몇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니"하는 것은 성찬을 들기위해 한자리에 모인 회중은 하나님앞에 있는 것임을 증거하는 것으로서 이점은 우리가 더욱 분명히 이해하여야할 중요한 점입니다. 즉:

1. 우리는 "아들"의 이름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를 우리의 지도자요, 이상으로 택하는 것입니다.
2. 우리는 항상 그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일요일이나 월요일이나 우리가 편리한 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그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높은 표준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3. 우리는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킬것"을 약속합니다. 그것은 십일조의 법, 금식기금, 지혜의 말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 친절, 용서, 겸손, 사랑 등과 같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의 의무는 거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대한 만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모든 원칙을 어기며 생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적의 꾀임에 빠진 것이며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을 드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그의 영이 항상 저희

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들으므로 주어지는 의무와 축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들의 이름에 의존하며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침례받기 위해 물에 잠길 때 하는 성약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성찬을 합당하게 들으므로 그러한 성약들을 새롭게 할 특권과 기회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성약한 것을 지키겠다는 것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고위층 역원들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합당하게 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찌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의 약한자와 병든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고린도 전서 11 : 27-30)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만약 어느 사람이 죄를 지었거든 그가 화해를 할때까지 성찬을 들지 못하게 하라" (교리와 성약 46 : 4)

나는 성찬을 들지 않는 형제들을 볼 때 그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주님과과의 성약을 새롭게 하기에 합당치 못하게 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와 원인은 무엇이든지 간에 성찬을 들지 않는 습관을 계속하여 지니고 있는 형제들을 내가 보거나 듣게

될때 어찌하여 그들은 성찬을 들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변
 화를 초래시키는데 것처럼 고집을 피우고 거부해야 하는지 의
 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실로 어느 사람이 성찬을 들기
 에 합당치 않다면 그는 다른 사람이 성찬을 들도록 성찬을 축
 복하거나 전달할 자격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주님과 성약을 새롭게 하기 계속해서 거부하며 고집한다면
 주님은 더 이상 그 성약들을 기억하시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들
 이 그것을 알기전에 모든 영적인 자태는 그 사람에게서 떠나갈
 것이고 그 사람은 그 후부터 홀로 남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10:21)

우리는 자주 모여서 성찬을 들으라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금식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생활에 예수 그리스
 도의 복음의 원칙을 적용하므로써 먼저 화해하며 주님과
 성약을 새롭게 하기에 합당하도록 생활하여야 함이 되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과 과오를 서로 용서하며
 우리 자신의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서 용서 받아야 합니다. 그
 러나 우리는 성찬을 들지 아니하므로써 주님의 영을 우리 스스
 로가 계속하여 거부해서는 안되며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지
 않게 하거나, 그 빛이 우리를 떠나게 해서도 안됩니다.

— 당신의 질문 —

질문: 구세주와 사도들이 돌아 가신후 전세계에 완전한 배도가 일어났다고 자주 이야기되는데 만일 이것이 문자 그대로 사실이라면 세상의 주민은 사탄과 그의 무리가 유인하는 영향아래 전적으로 방치된것 같이 여겨집니다. 이 점에 관해서 교시해 주십시오.

해답: 태초로 부터 주의 영의 영향력이 지상에 미치지 않은 때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는 인류를 사탄의 권세와 영향력에 완전히 내어 맡겨 버리신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조직하고 관리할 권위를 가진 인간이 한 사람도 없던 때가 있었던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하늘에서 부터 어떤 영감이 내려오는 일없이 전적으로 루시퍼와 그의 무리에 얽매여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사도와 거룩한 권위를 가진 사도들의 의로운 후계자들외에 모든 사람이 죽은 후의 암흑시기에 거룩한 신권을 회복할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지상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암흑시기동안에 능력과 지식을 다하여 주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쓴 많은 의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은 기록중에 자기 아들 모토나이에게 이 점을 밝혀주었습니다.

"보라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악에서 선을 알 수 있도록 하셨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판단하는 방법을 계시하리라 선을 행하도록하고 그리스도를 믿게하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권능과 은사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완전하게 알 수 있으리라 (모토나이 7 : 16)

이 사실은 영생의 길에서 온 인류가 떠난 암흑시기에 있어서도 사실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훈과 조직이

시작된 뒤에 예수의 순수한 복음이 지상에 사는 인간가운데 찾아 볼 수 없게 된 때가 왔었습니다.

거짓 의식과 교리는 세상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진리를 대치시켜 버렸고 거룩한 신권은 거짓 신조와 가짜 신권에 교체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주의 영향력이 사라져 버렸고 세상이 전적으로 사탄에게 예속되었음을 증명하거나 가능성을 시사해 주지도 않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교리와 성약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주신 거룩한 계시가 있습니다.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며 세상을 구속하기 위하여 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고 저를 받아 드리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나 저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선언하였노라.

"또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저 하는대로 인자에게 행하였도다. 인자는 자기 권능을 영광의 바른손에 들었고 이제 하늘에서 다스리며 모든 원수를 자기 발아래 밟으려고 세상에 내려올 때까지 다스리리니 그 때가 가까왔느니라

나 주 하나님이 이를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시와 날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나니 하늘의 천사도 알지 못하고 그가 올 때까지 저들은 알지 못하리라

그런고로 나는 모든 인간이 회개하게 하려하나니 내가 내게 보존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룩한 자외에는 모든 자가 죄아래 있음이니라 (교리와 성약 49 : 5-8)

세상에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특권을 부여받은 중요한 예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시자 요한은 이들중의 한 사람이며 교리와 성약 제 7장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엘리야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속주께서 무덤을 열어놓으신 후까지는 부활될 수 있는 생명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상으로 추

즉컨데 모세도 역시 알마처럼 승천하였습니다. 알마의 경우 알마서를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이같은 일을 끝내고 알마는 마치 밀렉땅으로 가는 것처럼 제라헴라 땅을 떠나니라 그 후에 저에 대하여 조금도 들을 수 없었으니 사망이나 매장에 대하여 우리는 아는바가 없느니라.

보라 이를 우리는 아나니 곧 저는 의로운 사람이었으니 모세처럼 성령으로 이끌려 올라갔다. 혹은 주께서 손수 매장하셨다 하는 말이 교회에 퍼지니라 그러나 보라 경전에 주께서 모세를 자기에게 영접하셨다 하였으니 우리는 주께서 몸소 알마도 영으로 영접하셨으리라 생각하나니 저의 사망이나 매장에 관하여 아는바가 없음이니라 (알마 45 : 18-19)

모세와 알마는 엘리야나 요한처럼 주께서 장차 어느날에 저들에게 시키시려고 예비해두신 어떤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승천되었다고 믿는 것이 극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27페이지의 계속) 방문교사 몇세이지)

위하여 용기와 지혜를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말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평가를 받을 유일한 바탕이 되는 것이다.

누구나 그의 종을 체육관에 보냄으로써 자신의 근육이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어느분의 말은 참으로 지당한 것이다. 이와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진술할 때 인정치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자신의 업적이 그렇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을 때에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복된 칭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마태 25 : 21)

지난 대회는 이례적인 것이었지만 대개 길어야 이틀, 시간으로는 열 시간 미만의 대회를 무려 삼개월에 걸쳐 준비하면서도 정작 대회를 끝내고 나서는 대회장 책상에 먼지가 많았다는 등 그렇게 시작되는 준비 및 진행에 있어서의 결함을 날날이 들추어 내는 대회 후 첫 지방부장단회에서는 지방부장단 의원들은 서로 얼굴을 들지 못하면서 "다음번에는"하는 사뭇 비장한 각오를(?) 갖어보지만, 벌써 몇번째 되풀이 되었으면서 그 래도 계속되는 버릇같은 푸념들인가?

무언가 아쉬운게 있다. 더구나 교회 전체가 선교부장단이 나 지방부장단의 것이 아니라는걸 얘기하고 보면 아쉽다는 그 무엇의 위치는 성도 전체쪽으로 기울어지고 만다. 협조라는



말은 완전한 개인이 존재한 후에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아예 개인이 형성되기 이전에 협조란 말은 한낱 표제를 위한 사치로운 표어다. 한국 성도들은 깨어 있는가? 가슴에 대고 물어온 되풀이된 질문이다. 우리는 정말 깨어있는가?

대회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준 여러 성도들의 땀방울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 지난 대회 서울과 부산에서의 총 동원 연인원 900여명, 그중 신권회 참석자가 200여, 일반총회 참석자가 700여명이 되어 한국지방부 대회사상 최고의 기록을 남기게 된 것은 기쁜일이었지만 재적 이천여의 성도가 지금은 모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가를 생각하게 되면 편편치 못한 세상 주변, 가난한 살림살이 까지가 마음에 걸려 아무말도 못하고 입맛을 다셔보는 도리밖에 없다. 기도는 가슴속의 언어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의 귀여움을 받고 있는 포드 자동차가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시절, 엔진을 돌리려면 일단 운전대에서 내려 자기손으로 크랭크를 돌려야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운전대에서 자유 자재로 엔진을 돌게도 하고 멈추게도 한다. 사람은 대체로 구식 포드 자동차와 같다. 한번 가동이 되면 잘 움직이지만 한번 엔진이 멈춰진 경우 외부의 자극이 연결될 때까지 멈춘자리에서 잠을 자는 것이다. 하늘의 문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했고, 구하는 이만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마태 7 : 7) 요컨대 우리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지방대회를 가져온 것이고 앞으로도 갖게 될 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생각하고 보면 분발하는 길외에 다른 별죽한 방편이 있을 수 있을까? 벌판에서 잠을 자는 구식포드 장동차는 곧 녹슬어버릴게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거기서 죽는다. 우리 한국 성도들은 언제까지 남의 자극과 돈과 때로는 경멸의 눈초리에 의해서만 움직여 질 수 있는 구식포드

자동차식의 생활습성을 탈피할 수 있을까? 잠을 자야 할 때 잠을 자야 하듯 일단 날이 새면 잠을 깨고, 대회를 갖어야 할 때는 대회를 갖으면서 한국 성도만의 힘찬 하나의 찬가가 울리는 날 탁한 내 목소리도 참여시키고 싶다.

특히 대신권 소유자 사십여명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기쁜일이었으며 영적인 뜨거운 말씀을 전해 주신 분들에게 임해 주신 성령의 은혜에 감사하고 싶다. 오월 대회는 벌써 문턱에 와 있다. 어떻게 해서라도 새로운 몸부침을 시작하지 않으면 영영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되풀이 할 수 밖에 없다. 자기가 일원이 된 전체를 바라보며 간증을 나누고 우리에게도 친구가 있으며 나 하나의 음성보다 뭉쳐서 외치는 찬송가 소리가 더 아름답고 힘차다는 사실을 우리는 대회에서 배운다. 결코 닳아오는 대회들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준 서부지부, 성동지부 합창단의 화음이 아직도 귓전에 울린다. 특히 영남지구 대회에서 특별찬송을 준비해 준 여섯 자매와 한 선교사를 중심으로 더 큰 발전이 이루어 지기를 빌고 싶다.

대회를 완전히 끝내고 상경하는 기차안에서 지부장님 이하 전 역원이 몹시 피로해 있었지만 모두 하나같이 무엇인가를 흡족해 하고 있었다. 훌륭한 지도자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의 긴장된 모습과 피로한 모습을 관찰하는 것은 지금 나에게 즐거운 일이다. 대회를 마친 자리에서 다시 닳아오는 대회들을 준비하기에 여념이 없어야 겠다. 대회는 성도들의 것이다.

(상호부조회 공과)

신 학 (교리와 성약)

제 63 과 거대하고 강한 자

교재: 교리와 성약 85장

1965년 4월 첫 모임을 위하여

목적: 하나님의 계시를 고수하는 중요성과 교회의 직책을 얻으려고 주장하는 행위가 어떻게 시험받는가를 인식하기 위한것.

서 론

윌리엄 더볼유 펠프스는 그가 침례받은 뒤 받을 어떤 축복을 계명에 의해서 약속받았다.(53장) 이 초기시대에(1831년 6월) 그는 예언자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을 따라 미쥬리주 인디펜덴스로 여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그 곳에서 그는 인색업에 종사해야만 했던 것이다.(4-5절) 예언자가 그에게 미쥬리주의 정세에 대해서 서한을 썼을 때에(1832년 11월 27일) 그는 교회의 최초의 정기 간행물인 "이브닝 앤드 모닝스타"지의 편집인이자 인색인이었다. 펠프스 형제는 또한 에드워드 파트릿지 감독의 보좌이기도 했다. 그가 쓴 서한의 답장에서 미쥬리주에 있는 성도들의 안녕에 대해 근심하고 있던 예언자는 성도들에 대한 소득 분배 문제에 대해서 교시했다. 대단히 중대한 문제들이 예언자의 가슴을 채우고 있었고 펠프스형제의 감정을 예언자는 영감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말했다.

... 나의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고 강력하시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시온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장차 어떻게 되려는지를 당신의 종에게 보여주소서. 더구나 그들은 교회와 교회의 모든 일을 조직하고 다스리기 위해 주신 율법에 맞게,

합당하게 하나님이 임명하신 감독이 쓴 기록에 의해서 그리고 헌납에 의해서 수득해야 할 것들을 받지 못하였아옵니다. (교회정사 1 : 298)

그 다음에는 펠프스형제에 대한 자신의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며 예언자는 이렇게 썼다:

윌리엄 형제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신에게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라. 또한 하늘의 시현으로 인하여 이 확신을 가진다면 그 문제에 대답하고 나의 마음을 그대에게 나타내 보여주리니(상동).

계시로서의 서한

1832년 11월 27일의 이 서한으로부터 우리는 교리와 성약 85장을 받았다.(교회정사 1 : 298-299) 역사적으로 저자가 권고, 격려 그리고 명령의 말을 펜으로 나타내려는 영감을 받을때 그 서한은 경전이 되는 예가 많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의 지식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계시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언명했다. (갈라디아 1 : 11-12) 기독교의 경전은 신약시대동안 교회의 지부와 개인에게 쓰여진 많은 서한으로 구성되어 있다.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디모데서등) 사도 베드로와 사도요한은 서한 형식으로 경전에 이바지했다. 물문경에서 물문이 그의 아들 모로나이에게 어린아이들과 관련시켜서 속죄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편지를 볼 수 있다. (모로나이 8장) 교리와 성약의 85장의 뒤에 나오는 장도 서한으로 되어 있다.(121,122, 123,127,128장들)

보존해야 할 교회 기록

충실하게 기록을 보존하는데 대한 중요한 교시가 시온(미조리주)에 있는 "하나님의 서기"에게 주어졌다. 헌납법에 따라 서 청지기는 비단 자신의 복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교회 전

반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상속(칭지기직)을 관리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자신의 재산을 헌납한 사람과 칭지기직을 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기록이 보존되어야 했다. (교리와 성약 85 : 1) 아래의 계시의 말씀은 오늘날의 우리들의 어떤 기록의 성격을 어느정도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태도, 그들의 신앙과 한 일은..." 라는것이 그것이다. 그 당시 시온에 왔으나 헌납하지 않은 따라서 당연히 상속할 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이 한 성약에 불충실한 자라고 간주되었다. 이런 사람들과 또 그들의 상속을 받은 뒤 배도한 사람들에 대한 벌이란 그들의 이름이 충실한 자와 함께 기록되지 않는 것이다. (2-3절)

생명책

천국에 보존되는 행위에 대한정확한 기록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서기에 의해 보존된 "하나님의 율법의 책"의 기록에 비할 수 있다. 훗날에 주신 계시속에서 천국에 보존되는 "생명책"과 일치할 정확한 기록을 간직할 필요성을 하나님은 강조하셨다. (동 128 : 7) 신약시대의 계시자 요한은 모든것은 충실한 자가 상속할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자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설명했다.

무엇이 던지 속된 것이나 자증한 일 또는 거짓말 하는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계시록 21 : 27)

어린양의 생명책이란 하늘에 보관된 생명책이다.

현대에 있어서의 적용

헌납의 율법이 시행된다면 구세주가 계명을 지키지 않는자에게 보복하려고 불로써 오실때 성도들은 그날에 대비해서 자신들을 준비하리라고 하나님은 1832년에 말씀하셨다. (교리와 성약 85 : 3, 11, 데살로니가 1 : 7-8) 이 멧세이지는 십일조

를 바치지 않는 자에게 닥쳐올 똑같은 심판과 비슷하다.

보라, 진실로 인자가 오실때까지 오늘은 번제의 날이요, 나의 백성의 십일조의 날이니 십일조를 바치는자는 그가 오실때 불태워지지 않으리라

그런즉 불의 진노가 있는 뒤 이는 주님의 방식에 따라 하는 말이거니와 — 진실로 교만한자와 악한자들은 내일은 밀대와 같이 되리라. 또한 나는 만군의 주이니 나는 그들을 불태워 바비론에 남아 있는 어떤자도 용서가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오늘 이 시간 힘써야 하리라 (교리와 성약 64 : 23-25)

장차 성도들이 상속해야 할것은 그들의 충실 여하에 따라 결정되리라는 것이 생명책과 그 목적으로 보아 분명한 일이다. 1900년의 년래 총회에서 연설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고 85장을 그들이 처해있는 상황에 적용시켰던 것이다. 1832년에 시행되었던 헌납의 율법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요구된 것이 아니고 십일조의 법을 포함하여 계명을 지킬 의무가 있는 교회의 전 회원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계명에 의해서 십일조를 바치지 않는자의 충실한 기록이 바치는 자의 기록과 꼭 마찬가지로 보존되어야 한다. 루드거 크라우슨 장로의 말에 의하면:

.... 선은 그려져 있다. 그것을 교회의 권능을 가진자와 충실한자와 충실치 못한 자에게도 알려져야 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므로 그것은 기록이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계시속에 분명히 말씀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은 영원한 상속이 우리들에게 분배될 날에 시온에서 아무런 상속을 받지 못할 것이다. (대회보고 1900년 4월 44페이지)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 특히 예언자와 교통하시는 방법은 여러가지 있다. 교리와 성약에는 주목할만한 계시의 형식이 많

다. 예컨대 27장에 볼 수 있는 성스러운 본의 방문, 76장에서 의 시현, 3,6,7,11장과 같은 우림과 돛뎀의 사용, 8,20,21장과 같은 영감 기타가 있다.

여기서는 계시의 다른 방법을 알아 보겠다. 예를 에노스에 들 수 있는데 그가 성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보라 다시 주의 목소리가 내 마음에 들려와 말씀하셨다..." (물론경 에노스서 10) 예레미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계시를 경험했다 (예레미아 1 : 4, 11, 13)

예언자 죠셉 스미스가 계시를 받을 때의 눈에 띄는 경험의 하나는 85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 아래와 같다.

그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는 이와같이 말씀하셨다. 그것은 모든것을 통해서 속삭였고 모든것을 꿰뚫었으며 그것이 나타날때 그것은 나의 뼈마디 마디를 떨게 했다... (6절)

니파이는 고집쟁이 그의 형들을 회개시킬때 천사가 "당신들에게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으나 당신들은 아무 느낌도 없었으므로 그 말씀을 느낄 수가 없었다." (니파이 일서 17 : 45)는 그때를 그들에게 상기시켰다. 교회의 모든 회원은 교회의 직책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 신성한 인도를 받을 권리가 있다. 히버제이 그랜트 대관장은 한 때 이렇게 말했다.

주님은 우리들 중 많은 사람에게 계시의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를 주신다. 그것은 마치 큰 소리를 가진것처럼 싱싱하고 힘차게 우리에게 내려진다. 그것은 생활을 유지시키고 있는 여러가지 많은 일을 인도하기 위해 사람들의 필요와 충실도에 따라서 누구에게나 내려지는 것이다. 그것은 교회를 위해 말하도록 성임받은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것이다 (대회보고 1945년 4월 9면)

신권 시대의 초기에는 교회를 위한 계시를 받을 권리와 권

세를 가진 사람은 한시기에 단 한사람만이 있다고 주님은 계시하였다. (고리와 성약 28 : 2-7, 43 : 2-4, 상호부조회 잡지 1959년 8월호 제 18과)

해 석

85장의 7절과 8절은 에드워드 파트릿지 감독과 미조리주에 있는 교회를 다스리라는 그에 대한 부름에 대해서 또 헌납의 율법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을 주님이 주신 것이다. 이 계시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과 그의 보좌 존 알 윈더와 앤톤 에취 런드는 회원들을 위해 이 문제에 대하여 글을 썼다. 이 계시의 해석에 대한 서론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이 신권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중 아마 이 계시 만큼 많은 이론을 야기시킨 계시는 없을 것이다. (고리와 성약 85 : 6-8) 또한 그것은 번덕스런 이론과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서 큰 영향력과 높은 지위를 얻어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허영심 많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방패로서 이용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에서는 높은 명예가 자기에게 주어져야 하고 성도들이 상속해야 할것을 이룩하는데 자기가 큰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못하게 하는데는 천성적인 큰 검손이 작용하리라고 생각할 것이다. 더욱이 만약 어떤 사람이 이유는 여하튼간에 이러한 지위와 이러한 예외적인 영향력이 자기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교회와 그 자신에게 하나님이 큰 것을 고귀한 선교의 사업을 하기 위해보내셨다는 것을 명백하게 지적하실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을 "거대하고 강한자"라고 선언해 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질서에 대한 완전한 무지를 보여준 것이다. 실로 그들의 견딜 수 없는 무지와 자기본위가 그들의 주장하는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었으며 그들이 빠져들어가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었던 거이다. 그리스도와 성도의 교회가 완전하게 조직되었고 성도들이 상속해야 할 것을 분배해 주실 분이 오실때 그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교회의 적절한 지위에 몰려나서 교회의 행정을 위해 마련된 질서에 따라서 임명되고 지지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인푸르브먼트 이터 10 : 929-930, 1907년 10월호)

이 공과에서 우리들에게 관한 귀절은 아래의 것들이다.

나, 주 하나님이 거대하고 강한 자를 보내리니 그는 손에 능력의 활을 쥐고 빛의 옷을 입고 그의 입은 영원한 말을 하리라. 또한 그의 몸은 하나님의 집을 질서있게 하기 위한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과 선조 및 후손의 이름이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입된 성도들이 상속해야 할것을 정리하기 위한 진리의 샘이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임명을 받은자 일지라도 하나님의 케를 손을 내밀어 놀르는 자는 벼락을 맞은 나무와 같이 죽음의 화살에 맞아 쓰러지리라 (교리와 성약 85 : 7-8)

이 귀절에 대한 설명을 대관장단은 이렇게 말했다.

1. 질투, 교만, 불신, 완고의 사태가 미조리의 형제들을 휩쓸었다.(84 : 54-58,76) 에드워드 파트릿지 감독이 전술한 계시를 초래케한 상태의 당사자였다.

2. 파트릿지 감독과 미조리주의 대부분의 성도가 어느정도 회개했으나 1833년 3월 주님은 감독에게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고 언명하셨다. 8년 뒤 그는 주님의 용서를 받으며 미조리주에서의 박해 때문에 죽었다. "그의 회개, 그의 희생, 그의 인내와 충실이 교리와 성약 85장에 포함된 계시에서 그에게 보여진 엄격한 심판을 완곡시키지 못했다고 누가 말할것인가? 어쨌든 주님은 삼년뒤에 파트릿지 감독을 흡족하게 받아 드렸다고 말

씀하셨다" 임프르브먼트 이터 10 : 938-939, (교회정사 11 : 302-303)

3. 파트릿지 감독은 그가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죽음의 확실로 쓰러지리라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다.(교리와 성약 85 : 8)

4. 만약 파트릿지 감독이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주님은 그의 자리를 메꾸기 위해 "거대하고 강한자"를 지명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관장단회는 "예언이 끊어진 사건"으로 간주했다. (임프르브먼트 이터 10 : 940)

에드워드 파트릿지 감독

에드워드 파트릿지 감독은 1831년 2월 4일 감독직에 부름을 받았다.(교리와 성약 41 : 9) 그 때 주님은 그를 "고대의 나다니엘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전에는 그는 켐멜파 교회의 회원이었으나 1830년 12월에 이 교회에 가입했다. 어느 정도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들이 실패 했기 때문에 미조리의 성도에 대한 박해가 심했을 때 그는 "가장 고귀하게 자기 희생적으로 행동했으며 가장 큰 인내심으로써 많은 모욕적인 일을 참았다." 물론경을 비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옷이 몇 군데나 찢겨지고 그는 미조리주 인디펜덴스의 광장에 세워졌으며 폭도들의 야유와 조소가 쏟아질 때 그의 몸은 콜탈에 칠하여지고 그 위에 새 털을 발라 놓았었다. 후에 그는 만약 성도들에게 기하여지는 미조리인들의 인간적인 잔인행동이 중지되었으면 하는 희망에서 다른 다섯사람과 함께 매맞고 죽음까지 당할지 모르는 인질로 그 자신을 내놓았다. 그는 뒤에 성도들이 미조리주로 부터 이사하여 일리노이주에 자리를 잡는것을 도왔다. 1840년 5월 27일에 파트릿지 감독은 나부에서 죽었다.

양자 택일

이 계명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중을 임명하시는가에

대해서는 달리 이론을 세울 근거가 없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과 그의 보좌들은 파트릿지 감독이 맡고 있는 관리 감독 회를 맡을만한 "거대하고 강한것"의 필요가 있는지 어떤지에 대한 중대한 전리에 주의를 기우렸다. "성도들이 상속해야 할 것을 정리하는것"이 장래의 감독의 의무가 될 것이다. (고리와 성약 57 : 7, 15, 58 : 14, 17, 85 : 7) 더구나 그 감독은 주님의 방식대로 부름을 받아야 하며 자기의 세력을 부식하고져 원하는 사람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신권을 가진 역원을 부르는 반차는 신권시대의 초기에 확립이 되었었다. 신권의 회복과 함께 주님의 일에 봉사할 사람을 부르는데는 권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하이럼 스미스는 그가 부름을 받을 때까지 복음을 전파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들었다. (동서 11 : 15) 교회 조직에 대한 계명속에서 신권가진 역원이 임명되고 성임되었다. (동 20 : 2-3, 38-39, 60) 더구나 그들은 지정된 모임에서 교회의 투표에 의하여 찬동을 얻어야 한다. (61-65절) 아래 절차들은 주님의 동의를 얻는데 필요하다. (1) 계시와 권능에 의한 부름. (2) 교회 회원에 의한 찬성지시. (3) 권능을 가진자에 의한 성임. 이러한 절차들은 앞서 말한바와같이 교회의 대관장의 부름을 확실히 하기 위해 후에 지적된 것이다. (동 28 : 2-7, 43 : 2-4) 교회의 모든 역원과 마찬가지로 관리감독 역시 에드워드 파트릿지 감독의 임명에 관한 지시가 증명하듯이 예외가 아니다.

다시 내 종 에드워드 파트릿지를 불렀다. 내가 한 계명을 주리니 그는 그의 생업을 떠나 교회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또 한 내가 성도들에게 내릴 그날에 나의 율법으로 그에게 맡겨질 모든것을 보살피기 위해 그는 교회의 독소리에 의해 임명되고 교회 감독으로 성임되어야 한다. (동 41 : 9-10)

장차의 감독들도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임명을 받을 것이다. 거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신다.

교회의 직위나 교회의 권리 또는 특권을 요구하는 자가 이제까지 있었고 아마 앞으로도 때때로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엉뚱한 오해에 대한 전술한 요점을 주의할 의무가 말일성도들에게 있다. 이 계시(85장)에 대한 메시지를 결론지으면서 죠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과 그의 보좌는 1907년 이렇게 썼다.

말일성도들은 다시는 축출당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의 교회를 이 지상에 세우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질서의 집, 율법의 집, 규칙의 집이므로 인간의 질서에 의한 이상한 방해자들이...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가지거나 그들의 인격이나 이론때문에 성도의 정신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도들과 함께 있다. 그 교회는 그 자신의 영속과 운영을 위해 하나님의 법에 자신을 맡겼다. 그 교회는 때때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잘못이나 폐해와 과실을 수정할 방법을 소유하고 있으며 무정부 상태나 혁명이 없다. 그것은 발달, 진보, 지식, 지혜, 인내와 자비의 증장이란 과정으로 잘못을 고친다. (임푸르브먼트 이터 10 : 942)

어떤 사람에게는 상속할 것이 없다.

85장의 나머지 귀절들은 율법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교회의 불충실한 회원들은 상속할 것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운명은 울며 이를 갈고 있는 불신자들 속에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9-11절) 불순종의 당연한 결과는 그 벌이 제사들의 자손들에게 과해졌을 때는 실로 중대하다.(에즈라 2 : 51-63) 그들은 주님의 집에서 의식과 이제는 죽은 충실한 선조의 집에서 절단될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과 떨어져
(4페이지에 계속)

방문교사 멧세이지

교리작성약에 의거하여 실천하는 진리

멧세이지 63: "사람들은 자신의 업적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업적에 따라 보상을 받을 것이니라" (교리작성약 76: 111)

1965년 4월 첫 모임을 위하여

목적: 합당하다고 헤아림을 받고 또한 주님의 칭찬을 받기 위하여 우리들의 삶은 값있는 행동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

성전에서 가장 명백하게 그려진 사실들 중 한가지는, 사람들이 그들의 업적에 따라서 심판을 받으리라는 것이다. 고대와 현대의 경전들은 이 사실을 입증하는 말씀들로 가득차 있다. 구세주께서는 그의 비유의 말씀과 설교중에 종종 선한일을 수행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찌니" (마태 7: 16)라고 하셨으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 7: 21)라고 한 사실을 강조하셨으며 또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자는 그집을 반석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마태 7: 24)라는 것도 강조하셨다.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훈계하시기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들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말라" (야고보서 1: 22)고 하셨고

예언자 니파이는 "그들이 그들의 업적 즉 그들 세상의 육신으로 행한 업적으로 심판받을" 날이 꼭 올것이라고 하였다. (니파이 일서 15: 32)

위대했던 벤저민 왕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늘에서나 지상에서의 그의 지혜와 능력을 믿으라고 훈계하며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믿으면 이를 행할지어다"라고 경고하셨다. (모사야서 4 : 10)

일들에 대한 이러한 표준은 종교적인 일들 뿐만 아니라 모든 활동분야에서 그의 성공여하에서도 그 개인 가치의 척도가 되어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발전시키고 적용해 온 기능에 의하여, 우리의 달성과 태도에 의하여, 그리고 우리들이 가진 지혜의 넓힘과 적용에 의하여 심판을 받는다.

한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수천 청중의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참으로 어려운 협주곡을 막 끝냈을 때 수많은 절찬자들중 한사람이 그에게 다가오며 말하기를 "참 훌륭하군요, 제가 당신처럼 연주하려면 아마도 제 온생애를 다 바쳐야 겠습니다."라고 하자 이에 대답하여 그 대 음악가는 "마담, 바로 제가 제 생애를 다 바쳐서 이론적이 이것이랍니다."고 하였다.

우리의 재능을 고려하지 않고 일하고 발전시키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얻게될 최고의 달성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위대한 주님의 교회에 있는 우리들이지만 단지 우리들의 지식과 복음지식 만으로서는 우리의 친구와 이웃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자격을 갖지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축복도 받지 못할 것이다. 지식과 학식이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것들은 다만 우리 생활의 행동에 옮겨질때에만 가치가 있는 것이다.

고리와 성약의 멧세이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 보상을 받을 것이니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능력이나 혹은 또다른 어느 사람의 간증에 의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스스로 부지런히 일하고 발전시켜야 하며 자기 자신을 알고 자신을 믿기

봉사의 모임 — 행복한 생활

제 7 과 서로의 친목은 행복의 요소

목적: 행복이 인간의 재물로서 자신의 힘을 나타내 보이는데 좋은 증거가 된다는 것을 검토.

1965년 4월 둘째모임을 위하여

제 삼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자신의 가정을 살펴보는 것은 어머니에게 있어 특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들의 생활가운데 스며든 얼마리의 마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이 마귀를 발견하고 이를 제거함으로써 우리들의 가정을 보다 행복하게 번영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열개를 기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 문법지식의 빈약함

모든 사람 특히 말일성도는 문법적으로 정확한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말하는 것을 생명으로 삼고 있는 까닭입니다. 흔히 가정에서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으로 말하게 되면 학교에서 영어선생님이 그 잘못을 시정하는데 불가능하게 되리만큼 어린이들의 회화에 깊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틀리기 쉬운 세가지 예를 들어보면

I seen (I saw)

You was (you were)

It don't (It doesn't)

등으로 잘못쓰는 수가 많은 것입니다.

2. 속어의 표현

성도들은 맹세나 속된말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속어사용

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언어를 불구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3. 큰 소리로 말하는것.

가족들에게 충고하고 싶은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를 제외하고는 서로 큰소리로 말하지 마십시오. 부드럽고 점잖은 언행은 평운을 가져오며 만일 부모님들이 이와같이 부드럽고 점잖은 말씨를 가정에서 쓴다면 물에 담긴 빵처럼 부풀게 될 것이며 이것은 그의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집안 사람들은 이방에서 저방으로 크게 소리 지르는 일을 삼가야 되겠습니다. 만일 꼭 해야만 할 어떤 말이 있다면 몇 발자욱 걸어가면 됩니다. 집안에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는것이 정숙지 못함을 깨달은 부리감 영 대관장은 통신을 목적으로 이쪽 복도에서 저쪽 복도로(1층에서 2층으로) 도관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그는 노하여 소리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성구를 인용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잠언 15 : 1)

4. 수다스러움

이것은 조잡한 의미를 갖고 있는 추한 말버릇입니다. 끈덕지게 욕설을 퍼붓거나 남의짜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나 또는 말다툼을 하는것은 어떤 가정에서나 행복의 꽃을 시들게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자꾸만 반복하는것은 좋지 못한 습성입니다. 말은 한번이나 두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리하여 이에 따르도록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입니다.

5. 방해 하기

이 행위는 일가족에게 마치 산불처럼 번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체의 능력 범위를 벗어나기전에 진압시켜야 합니다. 유아 시절부터 어린이들은 대확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록 가르쳐야만 합니다. 가장 훌륭한 스승은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집안에서 대화중이거나 통화(전화) 중 인 것을 방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는 때에도 역시 방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화 하면서 방이나 집안에 들어가거나 또는 구룹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서로 사이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6. 말 다툼

이 문제는 원치 않는 불청객 모양으로 살며시 우리 가정으로 스며들어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서 불청객 속으로 말려 들어가고 맙니다. 부리감 영 대관장은 말하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노니 만일 여러분이 남과 싸움을 하지 않는 자녀를 갖기 원한다면 부모 자신이 항상 선량한 성품을 지니십시요. 그리고 절대로 노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요. 싸움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어린이들을 일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7. 상스런 말 대답

어머니는 집안 식구들 간에 마음상하는 언짢은 말이 내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읍니다. 이러한 말은 한두번 하게 되면 입버릇이 되기 쉬우며 한번 한 말은 또다시 취소하기 어려우며 그 감정은 두번다시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맥케이 대관장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냈든 가장 강조한 서한문 중 하나에서 가정에서는 모름직이 정중함과 사려깊은 행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은 가정의 신성함을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사탄이 던지는 창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마음 상하게 하는 말을 사용치 않도록 해야합니다.

8. 잡담 (험담)

세상 사람들이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종사하고 있다면

잡담이나 무료하게 보낼리는 없을 것입니다. 실로 세상 사람들이 올바른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타인에 대하여 볼스한 언사를 삼가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남을 해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친절할 말씨는 결코 뒤떨미에 침을 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가슴속으로부터 일어나오는 선량한 말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의 고결한 마음을 깊이 깨닫도록 합니다.

9. 비난

비난은 그것이 건설적이 아닌한 결백한 성품을 망치게 하며 비난하는 사람자신도 해가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비난하는말이 입밖으로 결코 새어나가지 않도록 합시다. 한번 비난하면 더욱 더 많은 비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날 것입니다.

10. 잔소리

어머니는 늘 분망한 가운데 있으므로 어렵고 바쁜가운데 일하게 될 때는 강하고 바르게 말이 나오기 쉽습니다.

때때로 가정의 행복이란 단지 침묵가운데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생략(말을)한다는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유명한 아레구스 오스본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창조력 211페이지) 침묵이 무엇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에게 대한 좋은 질문인 것입니다. 이상 말한 모든것을 언제까지나 맘속에 새겨 두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벤자민 후렌클린이 열세가지의 덕행을 매주 하나로 집중하여 모든것을 채점한 것과같이 한다면 어떨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좋은 모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과도 같이 우리 자녀들은 우리들 그대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반영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느냐, 수치로 알고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이 보여주는 모범적인 행위에 따라 좌우되는 것입니다.

문 학: 문학으로서의 성서

제7과: 성서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

1965년 4월 셋째모임을 위하여

목 적: 성서에 나타난 몇사람의 위대한 인물을 상기하고 그들을 위대하게한 여러가지 성품의 참된 가치를 인정하며 우리들 생활에 미치고 있는 그들의 감화를 인식하도록 도움을 주는것.

서 론

우리들이 자기보다 훌륭한 인물과 서로 사귄때 즉 그 사람과 직접적인 교재나 또는 문학을 통하여 알게될 때 그들의 위대성을 어느정도 알게됩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의 어떠한 문학작품 보다도 훌륭한 인물이 성서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사실을 보드라도 성서는 위대한 저서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서 가운데 묘사되는 이러한 인물들은 그들의 생활에서 구현되는 갖가지 이상과 노력과 업적에 의하여 우리들에게 이상과 도덕적 향상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용기있는 아브라함, 순종을 요구받았을 때 이를 받아들인 이삭, 꿈의 실현을 본 요셉, 민족의 지도자며 입법자인 모세, 어려운 시련을 맡고 이를 수행한 용맹한 여호수아, 수차의 기회를 남용한 사울, 자신을 극복하고 드디어 왕이된 다윗, 부당하게 고난을 겪은 욥, 불리한 환경을 유익한 입장으로 바꾼 다니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세계에 널리 전파한 누가, 도시의 상태를 개선시킨 바울, 그외로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저자는 이러한 위대한 인물에 대해 "이들은 당시의 뛰어난고 훌륭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이 살고 있던 시대의 사상을 만들고 행동을 지시한 위대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

은 오늘날 더욱 그 이상의 감화를 현대인에게 미치고 있다. 그들은 현재 우리를 지도하고 있는 이상과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며 그들은 이것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이 육체를 가진 인간인 이상 그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결점이나 과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하는 것이었으며 이것이 그들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자신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노력하고 이를 수행했나하는 사실을 살펴봄으로써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인생의 거치른 파도에 견디는 용감한 모험가들이며 심한 폭풍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짐을 싣고 안전하게 항구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시련을 극복했나하는 것을 연구한다면 우리들이 공부하는데 크나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국적이나 시대를 초월하여 성공한 위인들입니다. 이제부터 성서에 나타난 위인중 세사람을 골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은 이삭을 하나님의 제물로 바칠려고 했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오늘날 조국을 위하여 그들의 아들을 바치는 부모와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복음을 전도하기 위하여 멀리 타국으로 자녀들을 즐거이 보내는 교회회원인 양친들의 심정도 이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온갖 위험이 그들 자녀에게 엄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부모들은 알고 있으나 이들 부모는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그들 자녀들이 봉사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신성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서

는 그의 독생자를 줄 수 있을만큼이 세상을 사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에 나타난 대부분의 영웅과는 달리 그의 행동에는 일호의 잘못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성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의 보상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당당한 위풍의 소유자로서 유명하며 위대한 지도자가 될 성격상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용감하고 놀라운 실행능력 과 도량이 넓고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으로 만일 그에게 기회만 주어졌다면 훌륭한 정치가나 또는 전승장군도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창립자며 그의 이름은 크리스찬이나 유대인이나 또는 회교도들까지도 널리 그를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류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는데 한층 용이하게 해 주었으며 또한 어려운 시련가운데서 올바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지금도 아직 인류에게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모 세

모세는 또한 다른 천재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위기에 처해있을 때의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율법자며 정치가며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황야에 인도해 내온 안내자입니다.

많은 책들이 모세에 관해서 쓰여있으며 강연에서 빈번히 모세가 위대한 유대민족의 정치가로서의 특증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는 모세가 병에 대한 청결과 격리에 대하여 진보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칭찬하며 "의사 모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태도가 고상하며 온화하고 자제심이 강하며 용기와 힘이 있는 사람이라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병졸이나 왕에게 가장 큰 선물인 온유한 덕을 겸비한 가장 겸양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한자는 ... 땅을 기업으로 밟을 것이다"라는 말은 온유의 힘보다도 더 강한 힘은 없다는 것

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탄생과 낳은 후 갈대잎 사이에 숨겨둔 이야기는 근대의 소설이나 영화에서 보는 구상과 같습니다. 바로의 딸은 이 어린아이를 발견하여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여자가 알고 있는 이상을 수행했습니다. 즉 모세라는 이름은 "이끌어내는자"라는 의미가 있으며 이 어린아이는 성장하여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부터 이끌어 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후에 지도자가 되기 위한 가장 훌륭한 준비를 그의 장인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칠 때에 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양치는 자의 조용한 명상적인 생활은 모세를 하나님과 친히 접근시켰으며 하나님께서는 불붙는 떨기나무의 표적을 주셔서 모세가 지도자로서 부름을 받을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지팡이를 뱀으로 또한 자신의 손을 나병과 같이 되게한 후 다시 원래와 같은 건전한 손으로 하는 등 많은 인상적인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후에 모세가 행한 갖가지 이적은 보다 큰 것으로 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정복하려는 애굽 왕의 신하인 마술사와 서로 힘을 견주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을 때 행한 것입니다. "열 가지 재앙"의 이야기는 최고조에 이르는 열 장면으로 이루어진 비극이라 이르고 있습니다. 위대한 모세의 일생에서 이러한 사건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상기함이 좋을 것입니다. 즉, 모세는 노예로서 출생했을 지라도 인류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의 한 사람으로 그의 중요한 업적은 세계사상 최악의 상태에 처한 노예들을 이끌어내어 이를 세계사상 가장 순수한 도덕적 영적 이상을 가진 위대한 국민으로 만든 것입니다.

성서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은 남자에 한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다음에 우리는 성서에 나타난 위대한 여성의 한 사람인 이

브에 대해 간단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브

이제까지 이브에 관한 저서는 별로 많지 않으며 성경에서도 이브에 관한 직접으로 관계있는 기사는 조금밖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브는 세계최초의 여성이란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브이후 이어서 모든 시대의 여성들이 남성의 마음가운데 깊이 지위를 확보해온 즉 이브가 갖고 있는 여성으로서의 특성은 아담이 이브와 함께 즐겁게 타락하고자 기도한 최초에 기록된 말로서 증명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말하기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찌로다"(창세기 2 : 24) 아담은 금단의 과실을 먹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금단의 열매를 먹은 결과 일어날 고통스런 시련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브는 그 여자의 죄를 견책 받았으며 심히 약한 여자라고 불려져왔습니다. 이브는 인류를 타락시킨 중개역할을 한 사람이라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근대의 성전인 "값진 진주"에서 이브가 속죄의 계획을 알았을 때 승영의 기쁨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자손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며 또한 선악의 구별도 알지 못하며 우리들의 구속의 기쁨도 몰랐을 것이며 모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도 알지 못했으리라(값진진주 모세서 5 : 11-12)

그러나 한 사람의 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덴동산을 나온 이브의 생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회원인 윌라드 돈이 말하고 있는바와 같이 "이브가 가인을 낳고 나는 주님께 의하여 아들을 얻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을 때 최초의 가족의 기초가 이루어졌으며 최초의 가정이 확립된 것이었습니다.

최초의 인간의 탄생이란 기적이 경험되고 이브는 이에 수반되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기쁨과 승리를 안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최초의 어머니는 처음으로 낳은 아들을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에덴동산과 같은 낙원을 희생했다 할지라도 충분히 가치있는 최고의 영광을 이브는 차지했던 것입니다.

"이브는 최초로 인간의 탄생을 경험했으며 또한 죽음의 슬픔을 견디어야 할 최초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이 죽음은 자신의 아들의 하나가 다른 아이를 살해하는 가장 두려운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성이 경험하는 온갖 경험을 겪어야 하는 것이 이브의 직분인 것같이 생각됩니다. 마치 모든 기쁨이나 슬픔이나 영광이나 굴욕도 여성이 겪고 알 수 있는 한의 모든 것을 경험하여 후손의 표본으로 정해진 거와같이... 이 이브의 일생은 타락이후에 선고받은 말을 성취시킨 많은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아들 하나는 폭력에 인한 죽음으로 잃고 다른 아들 한사람은 추방이란 벌로 잃고 이렇게 처음으로 얻게된 아들을 다 잃게된다는 것은 가장 큰 비통과 굴욕의 심연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보다 큰 슬픔을 생각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이 고통을 참고 극복함으로써 이브는 우리들이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와같이 훌륭한 여성이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슬픔이 때때로 일어나는 거와같이 이는 이브에게 크나큰 손실이었습니다. 아벨이 죽고 가인이 추방되고 이 외로운 공간의 일부를 메꾸기 위하여 또 하나의 아들인 셋을 이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브는 자기에게 닥쳐온 싸움을 극복하고 인류 최초의 부인이며 어머니의 위치를 훌륭하게 지켰습니다... 이브의 그 길고 파란많은 생애 가운데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이해하며 그의 보상을 받고 인류 제일의 여성이 된것은 이브가 여성으로서의 사명을 완전히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보조 교재

- (1) 모세의 성격과 아론의 성격을 비교해 보시오.
- (2) 십계(출애굽기 20 : 3-17)가 역사에 미친 영향을 말하시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 (3) 당신이 성경 가운데서 좋아하는 다섯사람의 영웅은 누구입니까? 어떠한 이유로 좋아합니까?
- (4) 이브와 마리아 외로 어떠한 여성들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 (5) 롯기나 에스더서의 발췌, 또한 드보라의 노래, 그 외로 이와 비슷한 성구를 어떤 회원에게 읽게 하시요.



사회 과학: 하나님의 율법과 교회 행정
교회 행정의 기능

제 20 과 교회 복지 계획

1965년 4월 넷째모임을 위하여

목적: 형제간의 관계와 그 뜻을 더욱 많이 이해하게 하기 위한것.

교회 복지 계획이란 말은 교회가 설립된 당초부터 실현코자한 철학적인 표현이며 신권은 보조적인 도움으로 교회가 목적하는바를 성취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존 에이 윌드소, 신권과 교회 행정 289페이지)

이 복지계획은 개인의 물질적 방면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정신적인 면에서도 이익을 가져오는 항구적인 계획이다. 즉, 이것이 교회 복지 계획이 지니고 있는 의미이다 (제이 레벤 크락크 제이알 담화집 26페이지)

실제적인 종교

전 공과에서 우리는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세속적인 일과 영적인 일들사이에는 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사상을 확고하게 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하나님은 복음과 신권을 회복하므로써 인간을 영적으로 유익하게 할뿐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이익하게 하실려고 목적하고 계시다" (복음교리 1956 총판 209 페이지)

이 교리는 교회활동에 있어서의 봉사, 오락, 연구, 참여는 평등한 가치로서 지배되어야 할 것이라는 사상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그 가르침은 또한 교회의 회원은 각자 또는 다른 회원의 영적 경제적 복지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인간은 그의 이웃의 상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난은 언제든지 우리중 누구에게나 닥쳐올런지 모른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서로 돕는다는 사상을 기른다면 여기에는 불행한 날을 대비하는 보람이 되는 것이다.

1946년 4월 5일에 개최한 특별복지 위원회에서 맥케이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만약 인류가 서로 돕는 것을 그친다면 그들은 멸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서로 도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고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은 그들의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요청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에 응할 능력이 있으면서 이를 거절하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어떤 사람이 말했는데 이는 정당한 말입니다."

일체가 되는 근본은 협력

브리감 영 대관장께서 인도하셨을 당시에는 서로 돕고 협조하므로써 교회를 운영했다. 영 대관장님은 말씀하시기를, "협조에 반항하는 자들은 곧 하늘에 반항하는 자들이며 자신의 복

지나 이웃의 복지 또는 진리 및 모든 선한것에 반대하는 자이다"라고 하였다.

성도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의 최소의 생각 또한 행위가 성도들의 일치협력의 행동에 반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하늘의 또는 선한 모든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 만약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의 뜻대로 할 수도 없으며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면 그의 제자도 될 수 없다.... (6 : 65)

복지 계획은 위에서도 말했듯이 실제면에서 철학적인 표현을 위해 이상적인 수단을 제공한다. 교회의 모든 회원은 물질과 식품의 분배 보존, 생산하는 계획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계획을 더 중요하게 만드는 것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또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이다.

형제애의 의미

교회에 있는 각종 직업을 가진 모든사람과 모든 가족들은 복지 계획이 그들의 것이고 그 이익은 필요로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유용하다는 감정을 가지고 함께 일할 수 있다. 곤경에 빠진 사람이 유복한 환경속에 있는 사람과 나란히 일한다. 이들은 함께 성공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곤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일할 기회를 축복받고 있으며 한편 다른 사람은 이 협력계획의 성공은 영속성을 확신하고 안전감을 갖게 된다. 아무도 재난이 언제 닥쳐올지 모른다. 또 그는 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의 동료들의 협조적인 노력을 언제 필요로할지 모른다. 복지 계획가운데서 일하는 것은 그외의 방법으로 베품을 받을 경우에 느끼는 모든 모욕감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런 목표를 갖고 기꺼이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결과로서 그의 즐거운 생활에 빠트릴 수 없는 물자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일하는자, 욕심을 내지 않는자는 그의 노력으로 인

해 그의 형제 자매의 고통을 덜 수 있었다는 것을 알므로써 기쁨을 갖는다.

복지 계획의 운영

위의 토론에서 복지 계획을 회원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나 그 태도를 강조했다. 결국 교회 사업에 있어서 사람들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실상 그들 사람들은 교회를 구성하고 교회의 행정은 참된 자격을 가진 교회 회원을 통해 행해지는 신권이 관리한다.

좀더 명확한 복지 계획과 그 기능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중요한 조직의 두면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우린 복지산물의 생산 방법을 요약해 보겠다. 이것은 교회의 복지를 목표로한 예산을 채우는데 소용되는 모든 물품 생산계획을 포함한다. 둘째, 한층 더 중요한 것은 정당한 때에 정당한 장소에서 그 생산품을 소모하도록 그 분배 방법을 시험해 보는 것이다. 여러면으로 볼 때 모두 위대한 통찰력, 주의깊은 계획, 헌신적인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러므로써 서로 똑같이 회원들로하여금 이 계획에 성취되는한에 있어서 이 계획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생산을 분배와 따로 떼어서 생각할순 없다. 말하자면 거대한 복지예산의 수단으로서의 활발한 상태는 즉 감독구에게 그들의 관할구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것을 알아서 쓸모있는 물건을 만들도록 암시를 줄 것이다. 고로 생산과 분배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1. 생산

모든 와드와 스테이크는 그들의 지역에서 공급할 수 있는 물품을 생산하도록 격려와 충고를 받아왔다. 그들은 농장을 경영하도록 건초와 곡식을 생산하도록, 가축을 기르도록, 낙농업을 경영하도록 육류생산을 발전시키도록 또 저 장식품을 위한

공장과 의복공장을 만들도록 격려받고 있다.

실로 그들은 교회복지 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그 요구 예산에 이바지하는 온갖 종류의 목표물을 생산, 발전시키도록 격려받고 있다.

교회는 복지 지역내에 설치된다. 각 지역은 여러 스테이크로 구성된다. 그들은 지리적인면에 기초를 두고서 조직되어 있으며 그들은 또 물품생산에 최대한의 준비를 하고 있다. 여러 와드와 스테이크는 그들이 속해있는 지역이 할당받은 예산에 도달할 수 있는 계획을 발전시키도록 격려받고 있다. 농장, 통조림공장, 산업으로 인해 복지계획의 생산력은 이 계획이 조직된 지 28년 후에는 주목할만한 성장을 가져왔다.

2. 분배

이 제독에는 두가지 중요한 면이있다. 첫째, 교회의 모든 와드의 소요품을 충당하려면 얼마나 많이 필요되는가? ;
또 둘째, 이 물건들을 누가 분배하려고 하는가? 합당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이 두면에 대해서 서로 토론해야만 한다.

실제로 복지에산의 생산은 협조에서 나오는 기적이라 할 수 있다. 예산은 지난해의 실제적인 소모에 기초를 두고 매년 편성된다. 각 감독마다 그의 회원들을 돕는데 무엇을 사용했나를 보고하며 또 지난해에 입각하여 다음해에 그가 필요로하는것을 보고한다.

복지계획에서 작성하는 예산은 영속적인 것이다. 감독이 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동안 또 다른것이 생산되며 셋째, 예산은 평가되게 된다.

복지계획이 각 구역에 있어 그때 그때 자신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의 생산을 한다. 그러나 그들의 필요품으로서 그들은 교회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소용되는 여분의것을 생산한다. 물품이 생산된후에 누가 실제로 그 물건들을 수요자들의 손으로

넣는가? 이 사업으로 인해 교회조직의 아주 참된 기능을 실현하게 된다. 이 복지계획은 교회기능을 완수하는데 새로운 역원들을 요구하지 않지만 시초에 주님이 선택하신 역원들의 세심한 조직을 요구한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물품을 분배하는 중심부는 감독의 손에 있다. 감독은 와드의 아버지이며 모든 회원 각자와 개인적인 이해 관계를 갖고 있다. 그에 대한 지지와 원조는 상호부조회가 맡고 있다. 상호부조회 회장은 참된 사회 봉사자이다. 감독이 방문한 후 감독이 지휘하는데 따라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가정에 들어가서 그녀는 그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 및 그 능력을 현실에 비추어 실제적으로 연구를 한다. 이 연구는 그 가족이 받게 될 도움에 대한 하나의 기초가 된다. 각 와드에 있는 신권회는 복지를 위해 일할 회원들을 얻으려고 조직된다. 와드 복지 위원회는 와드 신권 집행위원회(감독, 대제사, 구룹지도자, 70인회나 혹은 구룹지도자 장로회 혹은 구룹지도자 21세 이상의 아론신권을 소지한 일반서기로 구성되었다.) 상호부조회 회장단과 와드 서기, 이 위원회는 와드 회원들의 영적, 육체적, 지적인 복리를 해치는 상황들은 어떤 것이나, 질병, 실직에 따르는 와드 회원의 상태를 보고하며 이런 문제에 맞 부닥치게 된다.

창고를 맡은 감독의 명령을 통해서(보통 각 복지구역마다 창고 하나씩 있음) 자격있는 회원들의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감독의 창고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 복지 계획에 의해 준비된 물품을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감독관구의 필요예산에 따라서 이 창고에 저장하고 있다.

오늘날 가정방문교사를 통해서 신권의 기능은 회원들의 영적, 육체적, 지적 복리를 포함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개 요

위에서도 간단히 되풀이 했지만 복지 계획은 종교적인 이상을 실현하는데 한 우수한 예이다. 우리 형제의 몸가짐, 너그러움과 황금율에 대해 많이 말하여져 왔다. 그러나 복지 계획에서 우리는 진지한 형제간의 우애를 실제로 적용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영적, 물질적으로 가난을 해결하는 데는 교회 회원들간에 오직 단합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회원들이 자립하려는 욕망을 갖고 기꺼이 그들의 최선을 다하는 한 복지 계획은 형제들을 괴롭히지 않고 정회원들이 그들 형제들을 돕는 길을 마련한다. 와드와 스테이크에서 세워진 모든 계획은 직업없는 회원에게 가능한한 직업을 가질 기회를 준다. 직업없는 사람은 그 계획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어울려 힘을 합쳐 노력을 제공할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은 그의 가족을 돌보기 위해 복지 계획에서 그가 요구되는 한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 있다. 그의 정회원 형제들은 가난한 형제로 하여금 스스로 생활을 영위하게끔 같이 일을 해서 기반을 닦게 해 준다.

동시에 정회원들은 계속적으로 가난한 형제의 경제적 면을 향상시켜주기 위해 좀더 좋은 기회를 그 형제에게 주기 위해 산업면에서 영구적인 직업을 찾고 있다. 복지 계획의 도움으로 전교회 회원들의 단합된 노력으로 인해 일할 기회가 많이 주어지며 시간을 유효하게 사용하는 개개인의 노력으로 필수로 하는 것이 충당되는 것이다. 모든 멜키세덱 신권 소유자는 방문 교사 활동 족보, 선교사업과 복지사업을 포함하는 신권과 관계 있는 모든 계획에 참여하도록 격려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아마도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 공과가 결론으로 하는 것이다. 정원회 또는 그룹은 스테이크부 고등평의회와 각 신권 위원회의 지시에 의하여 동시에 감독회와 와드 평의회와 협력하여 이 모든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다. 각 정원회의 회원들은 신권사

업 전반에 걸쳐 책임을 지고 그들의 그룹지도자에게 직접 보고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신권 프로그램의 지도력은 여러 그룹에 배당될 것이다. 그래서 방문교사 프로그램의 지도력은 각 신권 정원회 및 그룹지도자를 통하여 일하는 감독회에게 있는 것이다.

죽보 프로그램을 맡은 지도력은 대제사 그룹에게 맡겨질 것이고 그룹지도자는 죽보에 관해서 워드평의원 고문으로써 봉사하게 될 것이다. 비슷하게 선교사업 활동을 맡은 지도권은 워드에 있는 신권 정원회나 그룹에 맡겨질 것이다. 또 워드에 있는 70인 지도자는 선교사업에 워드 평의원 고문으로서 봉사할 것이다. 감독관의 지시하에 장로 정원회는 복지 계획에 대한 지도권을 맡게 될 것이다. 또 장로회장이나 그룹지도자는 복지에 대해서 워드평의원 고문으로써 봉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감독은 워드 복지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봉사하게 되며 워드 평의원의 의장으로서도 봉사하게 된다. 우리가 교회에서 더 친밀히 함께 일하면 할수록 더욱 더 우리는 서로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우리의 노력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기적이 아닌 봉사하는 노력이라면 사랑과 이해는 우리가 받는 우리의 보상이다. 총괄적으로 말하자면 위에 언급한 모든것의 결과는 구세주께서 만일 우리가 그의 것이라면 우리는 단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것을 이행하는 것이다.

토론을 위한 고찰

1. 교회조직의 어떠한 부분들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데 책임을 갖고 있나?
2. 어떤 종류의 복지 계획에 당신은 참여하고 있습니까?
3. 신권 정원회는 그 회원의 물질적 복지를 위해 어떤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65년 2월 침례자 명단

서부 지부: 홍 양자, 이 미자, 권 순성, 정 정남,
박 옥희.

삼청 지부: 정 애란

청운 지부: 원 범재, 백 순향, 김 영애.

대구 지부: 남 국혜, 정 재철, 박 동자.

부산 동구: 윤 길성.

성동 지부: 강 히신

-
4. 상호부조회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데 무슨 중요역할을 합니까?
 5. 교회의 종합 복지 예산이란 무엇을 의미 합니까?
 6. 교회는 어떻게 직업없는 회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합니까?

참 고

복지계획 안내서

멜키세덱 신권 소책자

윗드소오 존 에이; 브리감 영 설교집 24, 26 장

1949년 4월 5일 솔트레이크 테버나클에서 개최된 특별복지
모임에서의 연설